2018년 제3차

연구자문·소통협력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1.

기획조정본부

(기획팀·소통협력팀)

2018년 제3차

연구자문·소통협력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10:30~13:00
□ 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 참여위원 : 총 13명(연구자문위원 6명, 소통협력위원 7명)

※ 회의 참석 자문위원

- 김**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위원장)(연구자문위원회)
- 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구자문위원회)
- 유** ******연구소 부소장(연구자문위원회)
- 전**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연구자문위원회)
- 임**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연구자문위원회)
- 류** **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연구자문위원회)
- 최** ****** 정책조정실장(소통협력위원회)
- 배** *** * 리서치 본부장(소통협력위원회)
- 김** **** 정책연구센터장(소통협력위원회)
- 김** **** 사무처장(소통협력위원회)
- 하** ***** 대표(소통협력위원회)
- 이** **** 연구소 부소장(소통협력위원회)
- 양*** ****** 사무처장(소통협력위원회)

※ 원내 참석

- 서** 원장, 유** 기획조정본부장, 남** 연구기획실장, 신** 박사, 주** 박사, 김** 실장, 신** 박사, 신** 실장, 김** 실장

☐ 진행 순서

○ 원장 인사말

○ 2018년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 참석위원 자문

☐ 주요 자문사항

○ 연구과제 제안, 연구원 발전 및 운영 자문 등

☐ 연구자문·소통협력 위원회 핵심 Keyword

○ 현장 중심, 시민의 삶 중심 연구 강화

○ 서울 차원 특성, 맥락 연구 수행

○ 메가트렌드 분석, 미래 연구 추진

○ 지식공유 기능 강화, 연구환경 개선

☐ 주요 자문내용 및 주요 결과 요약

○ 현장 중심, 시민의 삶 중심 연구 강화

-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문제 연구(김**)
- 라돈 등 현안이슈 실태 파악 및 정책 제안 연구(김**)
- 미세먼지 대책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하**)
- 미세플라스틱(스티로폼) 미사용 방안 연구(하**, 류**)
- 실내 대기질 관리 개선 방안 연구(양***)
- 안전자산 연구(전**)
- 대기질 개선 위한 공영주차장 녹지, 공원 활용 방향 연구(이**)
- 마을버스 전기차 도입 방안 연구(양***)
- 소득 및 자산 양극화 현황과 대안 제시 연구(전**)

○ 서울 차원 특성, 맥락 연구 수행

- 서울시 차원, 부동산 안정 대책 성과 등 체계적인 조사 연구(최**)
- 자치구별 온열환자와 녹지 상관 관계 연구(이**)

- 도심내 공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방안 연구(양***)
- 걷고 싶은 거리, 남북교류 사업 등 서울형 대안 제시 연구 필요(최**)
- 온종일 돌봄 등 정부 주요 정책과 중첩되는 연구의 선도적 연구 필요(최**)
- 서울시와 자치구간 분권 방안 연구(김**)
- 서울시 사업부서별(또는 부문별) 협치 활성화 연구(이**)
- 집수리와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제도화 방안(양***)
- 한강하구 이용, 활용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류**)

○ **메가트렌드 분석, 미래연구 추진**

- 지역경제 발전 위한 규제 완화, 혁신 방안 연구(전**)
- 서울 메가트랜드 분석 연구(임**)
- 서울시 혐오 관련 연구(남**)
- 민간 소유 공유가능 영역 파악 및 활용 방안 연구(임**)
-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 도입 방향 연구(양***)

○ **지식공유 기능 강화, 연구환경 개선**

- 연구원 생산 지식 공유 기능 강화 (배**)
- 연구 결과 현장 지도 컨설팅, 큐레이터 운영, 성과 활용 강화(배**, 김**, 임**)
- 연구결과의 시정 활용성 파악 필요(김**)
- 좋은 연구환경 마련, 연구업무 효율성 검토(배**, 김**)

2 연구자문·소통협력 위원회 자문 세부내용

□ 김** 자문위원(위원장)

- 서울교통공사 등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있음. 청장년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 이런 것을 연구과제로 들여다 볼 필요 있음.

□ 최** 소통위원

○ **핵심 대표 기획과제 체계적, 선도적 연구 필요**

- 19년 7대 대표기획과제, 혁신성장, 일자리 등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내용 상통하는 것 많음. 서울만의 독자적인 연구영역은 걷고 싶은 거리, 남북교류 사업임. 이 부분들을 서울만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지 관심 많음.
- 금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시민, 구민의 현안이었음. 체계적인 안정대책이라든가, 공공임대 계획 등 추진함.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안정 대책 실패와 성과 등 체계적인 조사 필요
- 온종일 돌봄 등 정부 주요 정책은 국책연구원과 연구 중첩 많을 것임. 서울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차원에서 서울만의 서울형 특성있는 선도적 연구 필요함.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 기대 많음. 지역의 합이 전국적으로 발전하길 기대. 충실히 연구하여 가시적인 성과 내길 기대

□ 배** 소통위원

○ **과제부담 줄여, 효용성 제고 필요**

- 과제당 예산 빡빡하면서 너무 많은 과제 수행 시 실제 효용은 낮을 수 있음. 과제당 예산을 높이고 건수를 줄이는 큰 원칙 검토 필요

○ **지식공유 기능 강화 운영 필요**

- 연구원의 핵심가치 '공유'임. 세어링 등 서울연구원 지식공유 기능 강화 추진 필요

- 현장에 기반한 연구내용을 고려해 현장을 좀 더 강화할 필요 있음. 현장기반 연구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통협력위원 등과 현장 방문하여 팩트 확인 등 좋은 성과 있을 것임. 국제컨퍼런스, 개원세미나 등 행사 적극적으로 홍보 및 참여 유도 필요

○ **활용 기반 강화 관련**

- '서울연구 큐레이트'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궁금. 일반 시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큐레이터인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함.

□ 김** 소통위원

○ **서울연구원 연구환경 좋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내부 노력 필요**

- 연구원 노동권: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들어 왔다는 의미임. 현재 연구부담이 큰 환경임. 좋은 연구환경에서 좋은 연구결과 나옴.
- 자체연구가 많아 연구부담이 너무 많지 않도록 연구환경이 좋아야 함. 양적인 수행보다는 질적인 수행이 되도록 연구환경 개선 노력 필요

○ **분권 관련 연구**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분권을 제대로 고민해야함. 현재 시범사업 등이 대부분임. 서울시와 자치구간 수평적인 협력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자치구에 어떤 권한을 배분할 것인지 등 고민 필요함. 자치와 분권의 시발점이 되어야 함.
- 2000년 초 현장의 성과가 좋은 서울형 사업들이 많이 있었음. 서울시나 서울연구원도 정책적 선도성을 가지고 있었음. 국토부 등 정부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상황에서 도입가능한 지 모르겠으나 선도적인 서울형 사업, 정책들이 필요함.

□ 김** 소통위원

○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 활용 파악 필요**

- 연구성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궁금함이 큼. 지자체 연구기관으로서 각 연구과제들이 제도화, 정책화, 타기관 확산 등 실질적인 효용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함. 과제 수가 성과로 될 수 있으나 성과 활용 사례라도 포함되었으면 함.

○ **시민의 현안 이슈 큰 연구 필요**

- 라돈: 관련제품을 사용, 이해하여 라돈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밖에 없음. 정부는 방어적 태도 취하고 있음. 방사능 제품이 얼마나 많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각 제품 기준과 관리 등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얘기 없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면, 현안이슈 중 하나를 잡아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정책 제안 필요

□ 하** 소통위원

○ **시민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연구 필요**

- 서울연구원이 시민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간 것이 좋았음. 19년 연구사업 환경부야 중심으로 의견 드리겠음.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이라 생각함.
- 미세먼지: 중국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 미세먼지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것임. 정부의 현안 대책들이 국민 수용성이 떨어짐. 정부가 환경적인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지면 지속 가능성 떨어짐. 세금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으나 국민의 의식 변화 예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한계가 있음. 국민의 수용성이 왜 떨어지는지 검토 필요함. 가슴으로 인식하고 발로 행동하게 하는 연결이 중요함. 이의 중요성 즉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세부적인 것으로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길 바람.
- 미세플라스틱(스티로폼): 미세플라스틱의 가장 큰 원인과 내용은 스티로폼임. 스시포폼을 가장 많이 배달하고 사용하는 공간이 서울임. 서울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의식과 검토 필요함.

□ 이** 소통위원

○ **연구자문·소통위원회 회의 다양화 필요**

- 이런 회의를 연구부서별로 많이 하는 것 좋을 것임. 예를 들면 안전환경연구실 현장연구 협의 등 필요시 서울시, 시민단체, 연구원 합동회의도 개최, 현장성 있는 연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협치연구 강화 필요함.**

- 협치가 서울시정의 주요 방침 중 하나임. 특정 박사가 매년 시정 전체 협치, 거버넌스 연구를 통해 좋은 성과 나오고 제도로 반영되고 있으나, 협치 추진 정책과 관련된 사업부서별 협치는 미흡함. 사업부서별로는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 있음. 부문별 사업부서별 또는 부문별 협치 현황 및 활성화 연구 필요함.

○ **미세먼지, 대기질개선, 온실가스 감축**

- 자동차 통행 줄이는 것이 핵심 부문중 하나임. 전기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전흥지역 등 다양한 연구하고 있음. 도로나 주차장을 줄이는 것이 어려우나 핵심일 것임.
- 공영주차장을 녹지, 공원으로 바꾸는 방향 연구 필요함. 승용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연구 필요함. 우려되는 부작용도 포함하여 연구

○ **폭염**

- 지난 여름 폭염으로 온열환자 많이 발생, 사회적으로 문제됨. 폭염, 자치구별 온열환자 발생 숫자, 자치구별 녹지현황, 면적 상관관계 연구 필요함.

□ 양*** 소통위원

○ **시민입장 연구 제안**

- 천만도시 시민의 요구가 많은 것 같음.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 제안드리겠음. 현안에 대한 연구, 당장 벌어진 현안의 즉시 연구와 대응 방안 제시 파트가 있으면 좋겠음.
- 방사능: 방사능 물질 관련 공공의 역할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님. 환경부, 지자체 등 각각 역할 해야 함. 공공의 역할 필요함. 지자체 차원의 방사능 측정, 지원 필요함. 시민은 걱정함. 간이 측정기 사용 등 시민, 연구기관, 지자체 협력 필요. 정부는 예산 지원, 시민단체는 인력, 연구원은 보증 즉 정확한 데이터 공급 필요함. 현안문제에 대해 전문가 영역, 공공의 연구 영역 역

할 기대

- 실내 대기질: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 오히려 공기청정기가 늘어나고 있음. 실내 대기질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실내 대기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 환기 여부 등 정확히 판단 못해 혼란스러워 함. 실내 대기질 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필요.

○ **서울의 특성 연계- 주거, 교통문제 부문 제안**

- 집값 상승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공임대 주택 건설 추진 중임. 독일은 공공임대를 공공에서 함.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함. 서울시내 공가 활용 필요함. 수요를 줄이려면 사람의 이동거리를 짧게 해야 함. 도시외곽에 주택을 건설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면 비논리적임. 도심내 공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방안 연구 필요.
- 전기버스: 시민 반응 좋음. 마을버스는 전부 경유차임.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주거지에서 가까움. 마을버스 전기차 도입 방안 연구 필요
- 일자리: 서울시에서 고민해야함. 기존건물 개선 방안 지원 추진 중이나 신청가구 없음. 현재 동네 집수리는 기술적, 전문성 부족으로 내구성 부족함. 기본 학력 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교육과 연계하여 집수리 일자리 프로그램 제도화 방안 필요함.
-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재생에너지 전환시대에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일치시대가 올 것임. 수시로 사고 팔수 있는 시스템이 확장될 것임.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이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될 것임. 이런 시스템이 제도화 되려면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필요함.

□ 남** 자문위원

○ **세타(SeTTA) 활성화 기대, 돌봄연구 시의 적절**

○ **공정성 연구 필요**

- 서울형 기초보장 체계 개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형 긴급지원 사업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음. 검토 필요함.

○ **공공일자리 사업 연구**

- 기존 연구가 많이 있음. 하지만 PSA 즉 공공일자리 사업(서울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 이들의 관리나 체계성, 효과성, 중복성 등 정돈 필요. 내년 서울시가 사회서비스one(공단) 설립할 것임. 서울시 산하기관 중 기존 재단과 겹치는 영역이 많음. 한쪽에서 전담할 수 없는 영역 있음. 타당성 연구는 되었으나 향후 관련 영역 관심 가질 필요

○ **혐오 관련 연구**

- 내년 문화다양성 실태 연구 굉장히 궁금함. 최근 여전히 서울시 안에서 여러 집단 간 혐오, 균열의 실태 굉장히 심함. 즉 종교집단, 소수집단 등 혐오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혐오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함.

□ 유** 자문위원

○ **혁신성장, 일자리 관련**

- 대표기획과제 설정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정책은 상호 갈등관계임.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은 혁신적 수요에서 나옴. 기존의 수요를 잘 지원하고 새로운 수요 발굴이 중요함. 새로운 수요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므로. 수요는 시민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발견하는 노력 중요함.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은 돌봄사회 실현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임. 돌봄사회에서 새로운 수요 고민해야함. 일자리에 대한 보장은 공공부분에서 해야 함.

□ 전** 자문위원

○ **시민이 삶 중심의 주제별 연구과제 도출, 운영 필요**

- 실별 연구과제 발굴도 좋지만, 다른 방법 즉, 살기좋은 서울만들기, 잘사는 서울만들기 등 시민중심,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주제별 연구과제 시도 필요함. 메가트랜드 연구 필요. 메가트랜드를 바탕으로 세부 트렌드가 연계되면 좋을 것임.

○ **먹고사는 문제 관련 연구 필요**

- 저성장, 양극화 관련하여 관심을 더 가지고, 거기에 소득정책, 자산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지는 지, 대안 제시 필요. 함께사는 경제, 공유경제도 포함 필요

- 정부 대출 규제, 시민의 삶 어려움. 금융도 연구과제 포함 필요. 가계부채 증가 중,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 사회적 금융 많이 이루어짐. 안전자산에 대한 연구 필요
- 규제 프리 죤 대두 중.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시 필요함.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어떤 규제를 혁신, 혁파해야 하는지 내년 과제 포함 필요

□ 임** 자문위원

○ 핵심가치, '미래' 관련 연구 강화 필요

- 메가트랜드 연구: 큰 그림 놓치지 말아야 함. 예, 미래기술 트렌드는 기술 진화 예측 제시하고 있음. 자연과학-증거기반(과거추세), 확률적 방법, 사회과학-시나리오 방법, 이 두가지를 혼합하여 서울시 전체 메가트렌드 분석 연구 필요함. 철학적, 사변적 연구 필요
- 연구 결과에 대한 현장 지도 컨설팅 기능도 필요.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점에서 결과물의 활용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문제임. 방안연구(탐색연구), 적용연구(확산연구)로 규범화하여 연구원의 특성으로 강화해야 할 기능일 것임.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서울연구원 결과물 적용 시도. 연구결과물의 지도적 역할 즉 컨설턴트 기능 필요함. 중소기업, 버스 운영 등 한 단계 더 내려갈 필요
- 서울내 공유재 성격 요소 찾을 필요 있음. 공공재 이외 민간 소유 공유가능 영역 파악,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연구 필요

□ 류** 자문위원

○ 한강 공동이용, 해양 쓰레기 문제 접근 제안

- 한강하구 공동이용: 금년에 1개 연구했음. 이용의 2가지 목적은 수로 이용, 바다모래 채취임. 모래 채취는 하구 생태계를 파괴함. 남북관계 때문에 한강 하구 환경문제를 얼마나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함. 생태계를 보장하고 공동이용을 위해 개발하겠다는 것임. 한강 공동이용과 관련해 서울연구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 필요함. 결국 한강하구의 생태계 보고하려는 하구까지 상류와 하류간 환경정의 구현해야 할 것임. 현재 하역별 계획 수립중. 요청시 서울연구원 적

극 참여 필요

- 해양쓰레기(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기후변화와 같음. 미세플라스틱 배출 시 전부 바다로 감. 해결책으로는 플라스틱 사용 안해야함. 각 지자체가 선도적 정책을 선도적으로 내세워야 함. 미세플라스틱 사용 안하는 방안 연구 필요함. 서울시가 플라스틱 사용에 있어 선도적인 방향 제시 더 좋을 것임.

□ 김** 자문위원(위원장)

○ 4가지 큰 틀에서 제안, 자문

-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없고 제안하신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면, ① 현장 중심 강화, ② 서울지역 맥락성 새로운 방식 강화, ③ 과학적이고 객관적 지식 갈구 필요, 제공 역할, ④ 새롭게 추가 필요한 연구과제 제안, 삶의 공간에서 경험한 일상 문제 제안하심.